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4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강 원 도 의 회
(사회문화위원회)

목 차

I. 연수개요	3
II. 연수목표	3
III. 연수 참가자 현황	5
IV. 주요 연수 일정	6
V. 방문국가 소개	8
1. 터키	8
가. 일반사항	9
나. 경제지표	10
다. 한-터키 관계	10
라. 역사	11
마. 정치·사회 동향	13
2. 그리스	14
가. 일반현황	15
나. 경제지표	16
다. 한-그리스 관계	16
라. 정치·사회 동향	18
VI. 주요 연수 내용 및 결과	19
1.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교류협력 방안 연구	19
가. 터키-한국 문화교류협회 방문	19

나. 터키주재 한국문화원 방문	22
다. 공식방문 결과 및 향후계획	32
라. 한국공원 방문	33
마. 문화재 복원 사례 연구	34
2. 관광선진국의 관광객 수용 상황 파악	39
가. 세계문화유산 이스탄불의 관광화 전략	39
나. 세계자연유산 카파도키아의 체험·레저 관광 연계	43
다. 세계복합유산 파묵칼레의 지역경제 활성화	45
라. 전통시장의 관광화 전략	46
마. 고대문화재의 스토리텔링 과정	48
3. 관광서비스 실태 조사	51
가. 외국인 단체관광객 현지인 가이드 의무 동행	51
나. 오디오투어 시스템	52
다. 입장료 비교분석	53
라. 교통시설	55
마. 장애인 편의시설	57
3. 체육분야 발전방안 고찰	60
4. 그리스 복지 분야 현황 조사	62
VII. 의정활동 반영 대상 및 방향(요약)	64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4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 ⇒ 세계적인 자연환경, 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관광 강국으로 성공한 유럽, 아시아 지역 국가의 관광시설 시찰, 복지시설 방문, 각종 자료 수집 등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해
 - ⇒ 수집 자료 및 개별 성과들을 의정활동과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I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4. 9. 28(일) ~ 10. 6(월), 7박 9일
- 연 수 자 : 10명(위원 8, 전문위원실 2)
- 연수국가 : 터키, 그리스
- 주요 연수내용
 - 강원 관광에 접목할 수 있는 특징적 관광 아이템 조사
 -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교통, 숙박, 놀이시설 등 비교 체험
 -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한 강원 관광의 미래 개선대책 연구

II 연수 목표

-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교류협력 방안 연구
 - 한.터키 문화교류를 위한 적정 문화 콘텐츠 확인
 - △터키-한국 문화교류협회(이stanbul) 방문

- 한류 확산 상황 이해 및 관광화 전략 연구
△주터키 한국문화원 및 한국공원(앙카라) 방문
- 민속문화, 예술단체 육성방안 비교 연구
△전통 이슬람문화 보전의 보고 터키 콘야 지역 탐방
- 터키문화와 강원도 문화 유사성 착안과 교류 가능성 연구

○ 관광선진국의 관광객 수용 상황 파악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외 관광네트워크 구축 현황
△관광 강국으로 급부상한 터키 및 그리스 지역 연수
- 관광서비스, 숙박시설, 관광시설 관리, 체류형관광 전략
△세계문화유산 ‘이스탄불’ 관광지 현장 탐방
- 유람선 운항, 소규모 관광지 조성, 체험·레저 관광 전략
△세계자연유산 ‘카파도키아’ 지역의 체험·레저 관광 접목 방법 연구,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 탐방 및 그리스 나이트 페리 탑승 견학
- 재래시장의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터키 재래시장 ‘그랜드 바자르’ 견학
- 관광안내, 관광홍보, 관광객 유인 대책 연구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방법

○ 체육분야 발전방안 비교 연구

- 전통스포츠를 통한 체육분야 교류협력 방안
△주터키 한국문화원의 한국 전통스포츠 등 확산 보급 자료 조사
-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관리 분야 자료 조사
△터키, 그리스 생활체육시설 현황 파악 및 자료조사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파악

○ 사회복지 분야 발전방안 비교 연구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노인복지 보장상황 파악
△그리스 노인복지시설(RELAX PALACE) 방문
- 노인의 사회보장 방법 및 보장 수준 자료 조사
- 사회폭력 예방정책의 추진상황 자료 조사
-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사회 안정망 구축 자료 조사

Ⅲ 연수 참가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금분	
2	"	부위원장	원강수	
3	"	위원	곽영승	
4	"	"	김기철	
5	"	"	김성근	
6	"	"	박윤미	
7	"	"	심영섭	
8	"	"	이정동	
9	사회문화 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명재	
10	"	주 무 관	이진기	

IV

주요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출발	도착	연 수 일 정
제1일 9/28 (일)	춘 천 인 천 이스탄불	06:00 10:20	 16:10	- 춘천 집결 후 인천공항 이동 - 인천공항 출발 (11시간 55분 소요) - 터키 이스탄불 도착
제2일 9/29 (월)	이스탄불	08:30 14:00 17:30		- 세계문화유산 관광객 수용태세 현지 확인 ▶ 이스탄불 역사지구(톱카프 궁전, 블루모스크, 지하저수지) 탐방 -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 터키 재래시장 그랜드 바자르 견학 - 터키-한국 문화교류협회 방문 ▶ 관광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제3일 9/30 (화)	이스탄불 앙카라	09:30 13:00 16:00 17:30	 14:05	- 문화재 보존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모색 ▶ 성소피아성당 견학 - 이스탄불 출발, 앙카라 도착 - 터키주재 한국문화원 방문 ▶ 교류협력 방안 간담회 - 한국공원 방문
제4일 10/1 (수)	앙카라 카파도키아	08:00 13:00		* 카파도키아로 이동 - 자연자원의 체험레저 관광 전략 연구 ▶ 세계자연유산 카파도키아 지역의 체험·레저 관광 실태 비교

일 자	지 역	출발	도착	연 수 일 정
제5일 10/2 (목)	카파도키아	08:00 13:00 14:00		* 콘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 민속문화 육성방안 비교 연구 ▶ 메블라나 사원 견학, 메블라나 전통문화의 세계적 전파 과정 연구 * 파묵칼레로 이동(약 4시간 소요)
제6일 10/3 (금)	파묵칼레 에페소 체스메	07:30 10:30 21:00		* 에페소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고대문화재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 하드리아누스신전 등 에게해 유적지 탐방 * 히오스(그리스)로 이동 후 나이트페리 탑승
제7일 10/4 (토)	아테네 이스탄불	07:00 09:00 13:00 20:20	21:40	* 피레우스 항 도착 아테네 이동 - 아테네 노인복지시설(RELAX PALACE) 방문 - 관광선진국의 관광객 유인 대책 연구 ▶ 아크로폴리스 지역 탐방, 국회의사당 견학 * 아테네 출발, 이스탄불 도착
제8일 10/5 (일)	이스탄불	08:00 17:30		- 고대유적 보존방안 비교 견학 ▶ 돌마바흐체 궁전 탐방 * 이스탄불 출발
제6일 10/6 (월)	인천		09:20 12:30	- 인천도착 및 춘천이동 - 춘천도착 및 해산

V

방문국가 소개

* 자료 : KOTRA 국가정보, 브리태니커, 두산백과

1. 터 키 (Turkey)



가. 일반사항

국가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위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적	783,562km ² (남한의 7.8배)
기후	지중해성 기후(해안), 대륙성 기후(내륙)
수도	앙카라(Ankara)
인구	7,666만 명(0-14세, 24.6%, 15-24세, 17.1%, 25-54세, 42.7%, 55-64세, 7.9%, 65세 이상, 7.7%)
주요도시(인구)	이스탄불(1,600만), 앙카라(500만), 이즈밀(400만), 브루사(268만), 아다나(212만)
민족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소수의 유태인 등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종교	이슬람교(99.8%, 수니파 다수), 기타(0.2%, 개신교, 천주교 및 유대교)
건국(독립)일	1923년 10월 29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실질 권력은 총리에게 있음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Abdullah Gul 취임일: 2007년 8월(7년 임기, ~2014.8.27.) 총리: Recep Tayyip Erdogan(실권자) 취임일: 2011년 6월(5년 임기), 2014.8.11. 터키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자료: EIU, 터키 통계청

나. 경제지표

GDP(명목)	8,200 억 달러(2013년)
실질경제성장률	4.0%(2013년)
1인당GDP	10,782 달러(2013년)
실업률	9.0%(2014년 4월)
인플레이션	9.32%(2014년 7월)
화폐단위	Turkish Lira(TL)
환율	(2014년 7월 평균) 1 달러 = 2.10~2.16 리라
산업구조	농목축·수산업: 6%, 제조업: 22.5%, 서비스업: 71.5% (2012년 6월)
교역규모 (2013년)	- 수출: 1,518 억 달러 - 수입: 2,516 억 달러 - 무역수지: -998 억 달러
주요교역품	수출: 귀금속류, 자동차, 기계류, 철강, 의류 등 수입: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

다. 한-터키 관계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1972),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7), 항공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1986), 투자보장협정(1994), 섬유협정(1997), 원자력협력협정
------	---

	(1999), EDCF 기본협정(미발효)(2003), 관광협력협정(미발효)(2006), 자유무역협정(가서명, 미발효)(2012), 상품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5 월 1 일 발효(2013)
교역규모 (2013)	- 수출: 56 억 5,782 만 달러 - 수입: 6 억 918 만 달러 - 무역수지: + 49 억 6,500 만 달러
교역품	수출: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선박 등 수입: 의류,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등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터키 투자(1987~2013 년까지 누계) - 신고건수: 356 건(신고금액: 1,388,701 천 달러) - 투자금액: 1,014,482 천 달러 - 신고법인수: 101 개 ○ 터키의 對韓 투자: 65 건 10,463 천불(1996~2011년, 신고)
교민	교민 총 교민 수 약 2,000 명 (일시 체류자 포함, 2013 년 추정)

**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라. 역사

- 세계 최고(最古)의 거주지 유적 중 하나인 차탈회윅 유적이 터키에 소재하는 등 터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거주지 중 하나이다. 기원전 18세기경 현재 터키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내륙에서 발현한 히타이트 제국은 한때 메소포타미아를 제패하고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였다.
- 한편 지금의 터키 서부, 당시 이오니아라 불리던 아나톨리아 반도

의 에게해 연안지역에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그리스인들의 식민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에페스, 밀레토스, 페르가몬, 비잔티움(현재 이스탄불) 등의 도시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로마 시대에 들어 소아시아는 로마제국의 중요한 속주가 되었으며, 서기 32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로 칭하면서 소아시아는 서양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 서로마제국 멸망 후에도 동로마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5백년 가까이 아나톨리아 반도 일원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10세기에 아시아 초원에서 온 유목민 투르크족이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하면서 동로마제국의 영토는 급속도로 잠식당하게 되었다.
-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투르크족은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그 일파인 셀주크(Selcuk) 투르크족이 당시 이슬람 세계를 통치하던 아바스 왕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 12세기까지 셀주크투르크족은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으나 십자군 전쟁에 이어 몽골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바스 왕조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이 공백을 틈타 동로마제국과 국경인 아나톨리아 서부지역에 있던 셀주크 투르크족의 일파의 족장인 오스만(Osman)이 대두하여 아나톨리아 서부를 제패하고 그 후손들은 유럽으로 진출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건설했다.
- 1453년 오스만제국의 술탄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로마제국의 영토이자 수도)을 함락하며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로마제국의 후신을 자처하게 된다.
- 오스만제국의 술탄들은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됐고, 과거 피지배국이었던 그리스의 침략 앞에 터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군을 격퇴한 후, 1923년 앙카라에서 터키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년간 집권하며 터키 사회 전반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을 일소하고 세속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 위와 같이 유서 깊은 터키의 역사는 그리스로마신화, 성서 등과 연결되어 터키 관광·문화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로 꼽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마. 정치·사회 동향

- 아타튀르크 사후 다당제가 도입되었으나,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가 대립하면서 세속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부의 쿠데타가 4회나 발생하는 등 터키의 정정불안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 발전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1974년에는 키프로스 섬의 터키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키프로스 섬을 침공,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다.
- 한편 19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서구화를 위해 1996년 EU와의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1999년에는 EU 준회원국으로 선출됐다. 2002년 집권한 정의발전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정부는 2012년까지 3기 연속 집권을 하면서 터키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 그리스 (Turkey)



가. 일반사항

국가명	그리스 (공식명: Hellenic Republic, 현지어명: Elliniki Demokratia)
위치	유럽남동부발칸반도남단에위치함. 북쪽으로알바니아, 마케도니아(FYROM), 불가리아, 터키와국경을마주하고있음
면적	131,957km ² (남한의132%)
기후	여름: 지중해성기후(고온건조), 겨울: 혼합형기후(저온다습)
수도	아테네(Athens)
인구	1,106만명(2013)
주요도시(인구)	아테네(376만명), 데살로니끼(104만명), 파트라(33만명), 라리사(28만명), 헤라클리온(29만명) 등
민족	그리스계(94%), 알바니아계(4.3%), 불가리아계(0.4%), 기타(1.3%)
언어	그리스어(헬라어: 공문서는그리스어만을사용)
종교	그리스정교(국교, 97%), 회교(1%), 기타(2%)
건국(독립)일	1821년3월25일(오토만제국으로부터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KarlosPapoulias 취임일: 2010년2월3일(재임) 수상(연립정부): Antonis Samaras(실권자) 취임일: 2012년6월20일

자료: EIU, Hellenic Republic, Eurostat(2014년9월확인기준)

나. 경제지표

GDP(명목)	2,494억달러(2014)
실질경제성장률	-3.6%(2013), 0.4%(2014 예상)
1인당GDP	22,594달러(2014)
실업률	27.2%(2014년5월기준)
인플레이션	-0.9%(2013)
화폐단위	유로(Euro)
환율	1 유로= 1.31달러, 1 유로= 1,337.91원(2014년9월4일기준)
외환보유고	260억유로(2013)
외채	3,103억유로(2013)
산업별GDP비중	농업: 5%, 광공업: 15%, 서비스업: 80% (2013)
교역구조	수출: 365.9억달러(2013년) 수입: 621.6억달러(2013년) 무역적자: -255.7억달러(2013년) *그리스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전형적인 수입국가임
주요교역품	수출: 광물원료, 알루미늄, 의약품, 플라스틱, 담배, 전기기기, 펄프, 동(구리) 등 수입: 석유, 의약품, 전기기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등

자료: 그리스재무부, IMF, World Trade Atlas(2014년 9월기준)

다. 한-그리스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1967) 특허및상표권상호협정(1973) 무역협정(1974) 일반사증면제협정(1979)
------	--

	과학기술협력협정(1994) 투자보장협정(1995) 항공협정(1996)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 해운협정(2006) 경제협력협정(2008) 그리스대통령국빈방한(2013)
교역규모	對그리스수출 -2013년: 8.8억달러 (전년동기대비 53.7% 감소) -2012년: 19.0억달러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 * 2013년기준, 우리나라는 그리스의 16번째 수입국 對그리스수입 -2013년: 2.7억달러(전년동기대비 9.9% 증가) -2012년: 2.4억달러(전년동기대비 172.7% 증가) * 2013년기준, 우리나라는그리스의 30번째수출국
교역품	對그리스주요수출품목 -2014년: 광물(91백만달러), 의약품(1백만달러), 기타비금속광물(8십만달러) 등 對그리스주요수입품목 -2014년: 선박(10백만달러), 플라스틱(14백만달러), 기계(13백만달러), 전자기기(8백만달러), 자동차(4백만달러), 철(7백만달러) 등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對그리스투자 -실투자금액 8백만달러(누적) 그리스의 對한국투자 -2008년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국내투자실적이 없음
교민	약320명(2013)

자료: Eurostat, World Trade Atlas (2014년9월확인기준)

라. 정치·사회 동향

- 그리스는 197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복귀 후 중도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당과 우익보수당인 신민당 양대 정당이 그리스 정치를 주도해 왔다.
- 그리스 경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최시까지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4% 성장을 보였다. 그리스는 EU 회원국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동시에 회원국 가운데 최대의 재정 적자(2003년 6.1%)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2005년 4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를 대폭 인상하는 세수확대와 긴축재정정책을 동시에 실시했다.
- 2009년 10월 조기총선에서 승리한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부는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재정적자 규모를 시인하면서 시장 불안을 촉발했다. 2010년 5월 제1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임금 및 연금 삭감 등 초긴축재정정책 실시로 노조파업과 시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사회불안 가중됐다.
- 그리스는 제1차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한편, 제2차 구제금융 지원안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총리직을 사임하게 됐다. 2012년 6월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를 주재로 한 신민당·사회당·민주좌파 3당 과도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2012년 2월 EU, IMF 등이 요구하던 긴축조치안이 그리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안이 최종승인됐다. 현재 그리스는 구제금융안 수혜의 대가로 혹독한 긴축정책을 수행 중이다.

1.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교류협력 방안 연구

가. 터키-한국 문화교류협회 방문

- ▶ 민간단체로서 터키 정부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한국 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하여 강원도와의 문화교류를 위한 적정 콘텐츠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14. 9. 28. 18:00

나. 방문인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외 7, 전문위원실 2

다. 주요내용 : 강원도와 문화교류 가능성과 발전방안 논의

라. 장 소 : 터키 이스탄불

2. 주요 활동





3. 주요 질의.답변 토론내용

[박용덕 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 이스탄불까지 방문하여 주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과 터키는 한국전쟁 참가 이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과 터키에 대한 문화교류 사업을 하면서 한국은 터키로부터 ‘내리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음.

[김금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 회장님의 환영과 터키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곽영승 의원]

- 회장님께서 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터키 정부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갔는지.

[박용덕 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 처음에는 공부하러 왔다가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알게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음. 터키 정부와 한국 정부간 또는 민간들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전용사들과의 인연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2만여명의 군인을 파견했었음.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한국에 방문했던 일들이 인연이 되어서 일이 시작됐음. 얼마전엔 터키 산림청장님을 모시고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음.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 강원도에서 올해 ‘국제민속축전’이 열리는데 터키는 참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행사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국제적 문화행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검토하겠음.

[박용덕 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 작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이스탄불시에서 참가를 했었음. 당시 문화융성의 사례로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우수한 사례로 남았는데, 이번 방문을 기회로 다음 행사 때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음 함.
- 국제적 문화행사는 민간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국 교류 단체와 정보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함.

[김기철 의원]

- 2018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교류협회나 한인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박용덕 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의 일이 문화산업이나 보니 올림픽 전에도 많은 문화적 교류나 교감이 있으면 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더욱 잘 될 것으로 생각됨.

나. 터키주재 한국문화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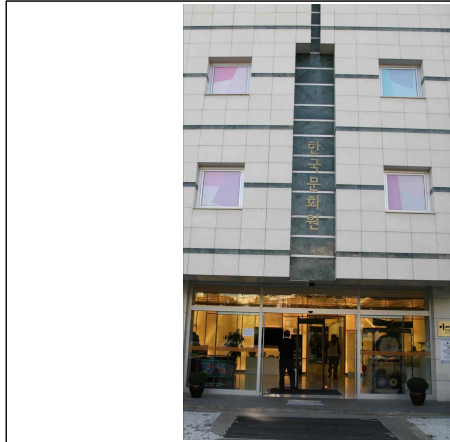
- ▶ 터키에 한국 및 한국문화를 알리고 양국간 문화, 교육,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터키 한국문화원에 방문하여 터키지역내 한류문화현상을 알아보고, 강원도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1. 방문개요

- 가. 일 시 : 2014. 9. 30. 15:00
- 나. 방문인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외 7, 전문위원실 2
- 다. 주요내용 : 한류 현상 이해와 강원도 연계 협력 사업 논의
- 라. 장 소 : 터키 앙카라 한국문화원

2. 방문기관 주요 활동

- 한국문화원 주요 역할 및 활동 소개(조동우 원장)
- 강원도와의 교류협력 방안 논의
- 한국문화원 이용 현지 학생과의 간담



3. 주요 질의.답변 토론내용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앙카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주심을 환영함.
- 한국과 터키는 터키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형제의 나라라 불리고 있으며,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특히, 2002월드컵 당시 3,4위전에서 보여줬던 한국인들의 터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터키인들을 감동시켰고,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 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 원장님의 큰 환대에 감사드리고 대사관 국경일 행사가 있음에도 시간을 내어 문화원에 대해 브리핑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한국문화원 설립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주터키 한국문화원은 양국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2011년에 한국 정부에서 세웠고, 건물은 임대 건물이며, 타 문화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규모임.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정도로 현지 직원 인건비와 각종 문화 행사 개최비로 사용 됨.

[원강수 의원]

-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와 강사, 학생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적은 운영비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

임.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한국어, 한식, 태권도 등의 강좌가 현지 학생들로부터 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강좌 운영을 위해 강사들은 교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행히 태권도 관장은 경험이 있는 분과, 서예 강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 적은 강사료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음. 아마도 한국에서 강사를 모시고 온다면 강사비를 포함한 숙식 제공 때문에 현 예산으로는 운영이 불가능 했을 것임.

[곽영승 의원]

- 문화원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점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학생들이 매우 많아서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첫 번째 목표는 문화원에 한국에 관심이 있든 없든 많은 터키인들이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었음. 이를 위해 1층 카페에서 무료 커피를 제공했고,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터키인들이 늘어났음.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원 도서관과 강좌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김기철 의원]

- K-POP 경연대회 등이 현지 한류팬들에게 매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음. 각종 협력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함.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문화원 행사는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열리고 있지만, 한국 지자체와 터키 지자체 간 행사로도 기획되고 있음. 다음 달 10월에는 부산시립문화예술단이 방문하여 현지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음. 이러한 행사들은 터키내 한국 기업, 참전협회, 터키내 각종 기관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음.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 원장님께서 큰 열정을 갖고 양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게 생각 됨. 원장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위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조동우 한국문화원 원장]

- 강원도청, 시군, 문화예술 관련 도립 기관들과 터키에 있는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맺고 교류협력 사업들을 만들어 갔음 좋겠음. 특히, 교류 사업들은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고. 작은 계기가 나중에는 큰 효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방문으로 강원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터키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음. 한번의 공연은 나중에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임.
- 더불어, 문화원에서는 한국 유학 관심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양국 대학 및 교육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강원도 내 대학들과 교류가 가능한지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인연으로 한국에 돌아가 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한류 상황과 한국기업 진출

- 2005년 국영TV TRT의 한국 드라마 방영으로 시작됐고, 그 인기는 ‘해신’, ‘궁’ 등 드라마로 확대 됐다고 한다. 이후 드라마 ‘올인’은 터키 전역에 송출되는 Star TV에서 한국드라마 최초로 터키어로 더빙되어 방송되면서 방송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영화 방면은 ‘엽기적인 그녀’, ‘쉬리’ 등 대중영화와 함께 유럽에서 호평 받았던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도 현지에서 소개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스탄불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이창동, 임권택 감독들의 영화들이 매년 초청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와의 교류도 추진됐다.
- 한류문화의 수출은 현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급속도로 늘렸고, 우리기업들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했고, 현지 삼성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제품, 자동차, 방송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터키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군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전쟁 참전 등을 통한 문화적 유대감이 높아 유럽,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교

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외국인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터키는 최근 10년간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 주목할 점은 세계 관광 6위인 터키가 의료 관광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는 의료기술이 주변 국가보다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면서도 라식, 치과, 미용치료 등의 비용이 유럽국가들 보다 현저하게 낮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 등의 수출 전략에 포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장이 제안했던 문화교류 등의 행사를 통해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 산업 등으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공식방문 결과 및 향후계획

1. 한-터키 문화교류협회 방문결과

- 터한문화교류협회 방문 결과 이스탄불시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에서 ‘이스탄불in경주’행사를 개최하는 등 터키 문화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2016년 국제민속예술축전에 터키 초청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고 있고, 성사 시 도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국내 언론에서 성공적 행사로 평가하고 있는 ‘이스탄불in경주’ 행사를 참고할만 하며, 단순한 외국공연단 초청행사가 아닌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넓힌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역사적 스토리인 ‘실크로드’를 현재로 가져와 당시 동방의 경주와 서방과의 관문에 있었던 이스탄불 사이의 유사점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왔다.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1) 국제행사 개최시 규모가 아닌 ‘스토리’에 집중

- 우리 강원도는 강릉 단오, 영월 장릉, 평창 월정사 등 문화역사적 강점을 이용하여 터키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스토리를 만들어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현재 추진 중인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국제비엔날레,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과 연계한다면 무늬만 국제행사로 끝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실질적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 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회나, 예산심의 기회에 집행부의 계획을 접목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2) 민간단체와의 데이터 구축 협업

- 국제행사 개최시 실질적 ‘국제행사’로 운영하려면 행사 준비 전에 다양한 문화, 학술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 한-터키 문화교류협회 방문을 통해 터키 지역 문화교류 행사 시 필요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관계를 구축.

[참고 사례 연구]

《이스탄불 in 경주》

- 행사명 : 이스탄불 in 경주 2014
- 주 제 : 새로운 여정의 시작(Starting A New Journey)
- 기 간 : 2014. 9. 12 ~ 9. 22
- 주 최 : 이스탄불시, 경상북도, 경주시
- 주 관 : 이스탄불시, 경주시, (재)문화엑스포
- 의미와 행사 결과
 -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세계의 교차로 이스탄불을 홍보하고, 한국과의 문화외교 및 교류를 통해 터키 이스탄불 관광산업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마련 했음.
 - 관람객 72만명을 이끌어 냈고, 단순한 도시 교류가 아닌 지구촌 문화 교류의 장으로 도시간 국제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음.
 - 경주시는 2015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행사 준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함.

2. 주터키 한국문화원 방문결과

1)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성과 거양

-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자치단체간 신뢰관계를 구축 이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강원도립예술단의 터키 공연 등으로 첫 계기를 만들고 교류 협력이 가능한 부분들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처음에는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기업들의 후원 등을 통해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강원도내 기업들의 터키 진출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용한 강원도내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터키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신뢰가 높기 때문에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강원도 방문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사회 대학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가교 역할

- 연수 후 도내 대학을 방문해서 주터키 한국문화원장님의 제안을 설명하고 양국 대학들의 교류 협력 사업의 가교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다.

한림성심대학교 방문 · 협의

- 방문 일시 : 2014. 10. 22(수) 16:30
- 방문 장소 :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실
- 방 문 자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전문위원실 2
- 방문 대상 : 금승호 총장, 조용택 부총장, 허진강 국제교육원장
- 주요 내용
 - 터키 한국문화원의 양국 대학간 교류협력 사례를 설명
 - 한림성심대학교의 외국 대학과 교류협력 현황 설명
 -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 계획 설명
 -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대학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간담

□ 향후계획

- 해당 학교 총장의 외국대학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터키 한국문화원을 통해 교류협력이 가능한 대학 추천 요청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양 대학간 교류협력을 지원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계획



3. 향후 추진 가능한 교류 분야

- 1) 의료기기 산업에 특히 가능성이 보이며, 터키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수요 증대가 예측되어 강원도 의료기기 수출을 교두보 마련이 가능. 사업 진행시 민간 측 문화교류협력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 마련.
- 2) 강원도 국제민속축전 등 도내 국제행사에 터키의 참가 확대
- 3) 한국대학과 터키대학간 교류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 도내 대학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

라. 한국공원 방문

- 터키와 한국이 현재의 우호관계를 가능케 한 터키의 한국전쟁에 참가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공원을 방문.
- 한국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전사자들의 이름과 출생년도, 사망일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불국사의 석가탑을 본떠 만든 기념탑이 있다.



- 전사자들의 유해는 이슬람교리에 따라 즉시 매장을 하고 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부산UN기념공원에 묻혀 있다고 한다.
- 터키와 한국의 상호우호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참전용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니, 단순한 경제논리보다 그 내면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관계가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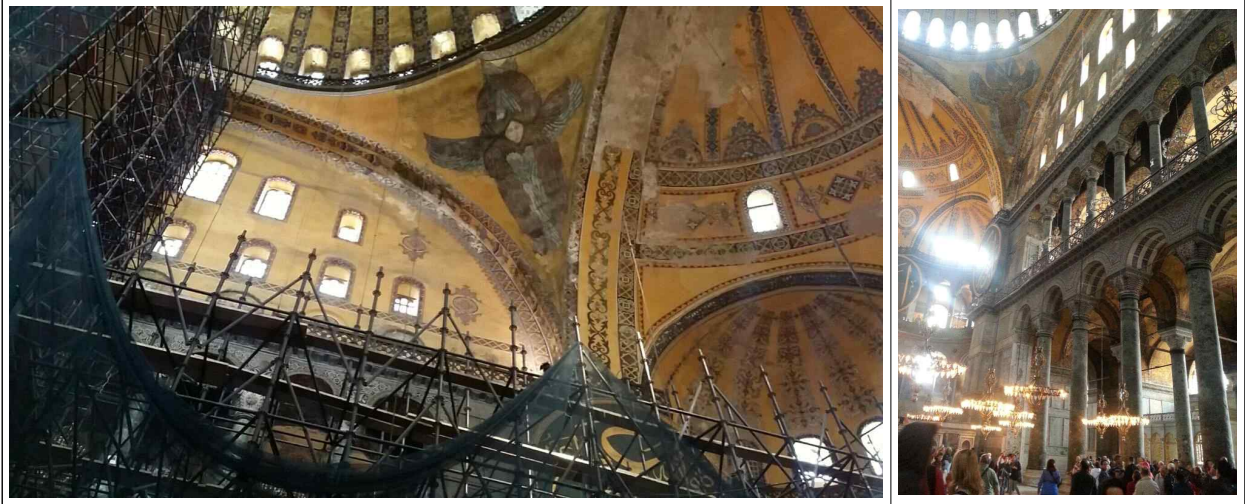
마. 문화재 복원 사례 연구

1. 성 소피아

- 비잔틴시대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는 성소피아는 정식 명칭은 ‘성 소피아 박물관’이다. 정식 명칭에서 현재에는 성당으로도 모스크(이슬람 사원)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이스탄불의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 받는 박물관으로, 건물 전체를 모두 꼼꼼히 관람하려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라고 느꼈지만, 일정상 오래 견학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 성소피아는 537년에 건설되어 이스탄불이 오스만제국에 정복되기 까지 916년간 교회로 사용되었고, 1453년 오스만제국에 정복당한 이 곳은 모스크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 때 대성당 내부의 십자가가 떼어지고 성화들이 석회질로 덮어졌다고 한다. 성화들의 일부 훼손은 있었지만, 얇은 석회로 덮어져 복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종교가 다른 제국이 점령했음에도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존경을 건축물의 파괴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포용력 때문에 현재에도 이 위대한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1923년 오스만제국이 무너지고 터키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세계는 소피아의 반환과 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 터키공화국은 성소피아를 인류 모두의 공동유산으로 지정하며 박물관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고 기독교 뿐만 아니라 이슬람까지도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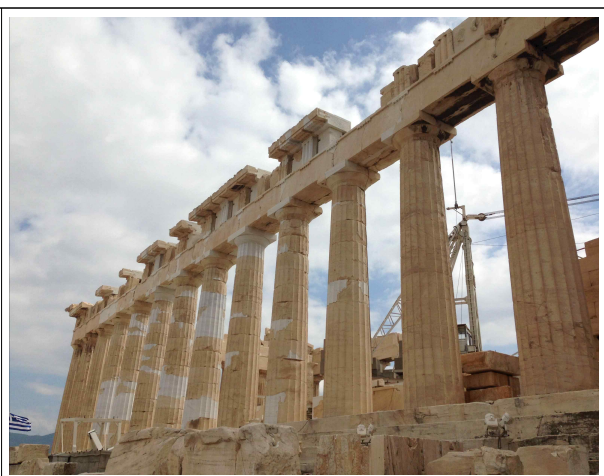


- 현재에도 보강 및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재 곳곳에 복원 과정과 복원 전의 모습, 복원 후 앞으로의 모습 등을 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부분들이 문화재 복원과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2.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 세계에서 가장 균형잡힌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는 파르테논신전은 유네스코 고적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전으로 짓어진 이 건축물은 시대에 따라 교회, 사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 현재에도 복원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는 가림막 없이 복원 현장 자체를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원현장에는 복원 전의 모습과 복원 후의 조감도 등이 안내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기둥들의 복원 모습을 보면 유네스코 복원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복원원칙은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신기술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 새로 복원한 부분과 원래의 부분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 최근 광화문과 남대문 복원과 관련하여 논란의 끊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복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역시 복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었고, 그리스가 독립 후 복원하여 공개한 신전은 잘못된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아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 후 복원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하며 진행하고, 속도전이 아닌 목표시점 없이 가능할 때까지 진행한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

《의정활동 참고 사항》

- 우리 도에 산재한 각종 문화·종교시설의 보호와 보존은 그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왔으며, 미흡했던 분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서 문화재의 복원과정에서 오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 특히 광화문의 복원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 문화재 복원사업에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정에서의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노력하여 완벽한 복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관광선진국의 관광객 수용 상황 파악

가. 세계문화유산 이스탄불의 관광화 전략

1. 히포드롬 광장

-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인 두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를 지배한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은 현재까지도 과거 영광스런 번영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도시 전체가 생생한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2백만명의 관광객이 이스탄불을 찾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도시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있다.
- 이스탄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히포드롬 광장은 고대 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이 광장은 로마시대 대경기장 유적으로 203년까지 이곳에서 마차경주가 열렸다고 하며, 이곳에 이집트에서 싣고 온 오벨리스크,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로신전에서 가져온 뱀기둥 등이 있다.



- 히포드롬 광장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성소피아성당, 지하저수지 유적, 블루모스크 등의 유산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현재로서의 ‘광장’ 역할도 하고 있다.

2. 톱카프 궁전

- 약 400여년간 세계를 재패한 오스만 제국의 중심인 톱카프 궁전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오스만 건축양식의 변화된 모습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톱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 술탄들의 거처했던 성으로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이아를 전시하고 있는 보석관, 다윗의 검, 모세의 지팡이, 요한의 황금팔 등이 보관되어 있는 성물관, 종교관들이 있다.
- 톱카프 궁전은 그 자체로도 유적이지만, 현재에는 박물관이란 이름이 더 걸맞을 거 같다. 문화유적과는 별개로 신축건물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문화유적 전시 상황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유적의 보전과 현재에서 어떻게 보전하는 것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블루모스크

- 오스만 14번째 술탄인 아흐멧 1세에 의해 세워진 사원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원이다. 터키의 사원은 첨탑의 수로 그 규모나 위엄을 나타내는데 총 6개의 첨탑이 있다. 맞은편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성소피아 성당의 양식을 발전 계승해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다.

- 사원의 공식 명칭은 술탄 아흐멧 사원이고,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모스크라고도 불리어진다.
- 4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외부 벽과 기둥이 전부 대리석이고 내부의 장식, 모자이크, 환상적인 창, 타일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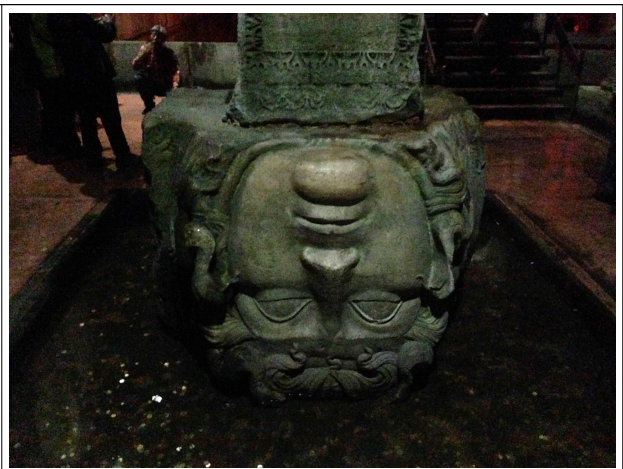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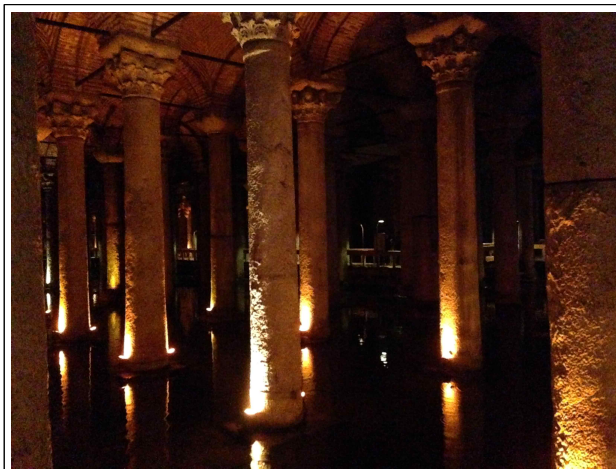
- 방문 당시에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신자들의 기도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방문시간을 제한하고 입장시 신발보호 비닐을 쓰게 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 이는 강원도의 성당 등 근대문화재와 유서깊은 사찰 등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템플스테이 등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과 관광당국의 배려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

4. 지하저수지

- 비잔틴 시대에 이스탄불에 세워진 60여개의 지하저수지 중 가장 큰 예레바탄 저수지는 이스탄불 성소피아성당 바로 맞은편에 위치

하고 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비잔틴 성벽 내의 물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 적의 침해를 피하기 위해 지하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 70m x 140m 의 큰 공간의 기둥은 대부분 로마의 다른 건축물들로부터 가져왔으며 총 33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특히 가장 뒤 쪽으로 세워진 기둥은 메두사의 머리가 옆으로 또하나는 거꾸로 놓여 있다. 진흙으로 덮여있던 이 저수지는 1987년 복구 작업을 시작해 공개되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다양한 조명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다만, 사람들에게 공개 된 후에 관람을 위해서 다양한 조명을 설치한 점, 습도 조절과 온도조절을 위해 에어컨 냉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활동 참고 사항》

- 비록 터키처럼 역사가 오래되거나 세계의 주목을 받을 유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보유한 문화재를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터키의 많은 유적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현존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강원도의 우수한 유적지와 종교 유적지 보존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의 집행부 문화재 보존과 보호 시책에 이번 연수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나. 세계자연유산 카파도키아의 체험·레저 관광 연계

- 카파도키아는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대규모 기암지대이다. 지역 전체가 에르지예스산의 화산폭발, 지진, 지하수 등의 침식으로 생긴 버섯이나 죽순 모양의 기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로 이루어져있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7세기경부터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응회암층을 파서 암굴교회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때문에 문화적·자연적으로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만화 스머프의 작가가 이곳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고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현재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동굴호텔 등이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지역은 새벽에 백여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떠올라 또다른 장관을 연출하는데, 이용료는 한화로 20만원 정도로 열기구 이륙 위치와 업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열기구 체험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니 자연유산의 체험관광 상품으로의 연계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안전상 문제는 27여개 업체가 각기 경쟁하지만, 각종 인증제도를 통해서 체험객들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 참고 사항》

- 강원도에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모험레포츠를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래프팅, 레일바이크 등의 대중적 요소를 가미한 기존 상품과 함께 암벽등반, 수륙자동차 아르고, 패러글라이딩 등 전문레포츠 분야를 대중적 참여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카파도키아 열기구 현장 견학에서 느낀 바와 같이 안전문제를 강원도만의 안전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자연유산인 카파도키아 지역은 동굴을 이용한 특색있는 관광지로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현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과 호텔, 그리고 지역특산품인 도자기를 판매하는 판매시설 역시 동굴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개조를 통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이는 보고만 돌아가는 자연유산 관광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하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다. 세계복합유산 파묵칼레의 지역경제 활성화

- 파묵칼레는 석회층으로 인해 만들어진 빼어난 경관과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어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복합유산이다.



- 이곳은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온천과 레저시설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보존을 위하여 그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 또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족욕장 등에 출입할 때는 맨발로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등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를 받기도 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환상적인 경관 속에서 이용가능한 족욕 온천은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입구 앞에 잘 정돈된 기념품 가게와 카페 등이 있어 지역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 전통시장의 관광화 전략

[그랜드 바자르]

- 비잔틴 시대부터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1,400년대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만들어 현재 형태의 시장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랜드 바자르는 10여회의 지진과 화재 등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재난 때마다 복구했고, 현재의 모습은 20세기때 복구된 것이다. 5,000여개의 상점이 즐비해 있고 이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장’,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시장’ 등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스탄불에 가면 꼭 가야하는 장소로 관광화 상품이 되었다.



- 전통시장은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방문했을 때도 터키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해서 우리 강원도에 존재하는 시장들이 경쟁력이 없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우리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를 고민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흡수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현대 시설물로의 재건축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아니라, 안전적 측면에서의 보강을 중심으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추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면, 우리 강원도 전통시장들이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보아진다. 최근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중국인관광객들이 도내 관광을 할 때, 쇼핑센터가 없어서 수도권 등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쇼핑센터의 신축만이 해법이 아니라 기존의 상권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또 다른 해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의정활동 참고 사항》

-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답게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은 인위적인 발전 보다는 집단화, 전문화해야 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터키의 전통시장은 품목은 대단히 단순하고 같은 품목이 밀집한 형태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관광객은 그곳에 가면 구입 가능한 품목(장신구, 시계, 금석공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다는 기대심리가 전통시장이 오늘날에 이르게 한 배경으로 판단
- 따라서 우리 도가 육성하는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의 육성이 현대화한 시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대화 시설 못지않게 전문화된 품목의 집약적화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시책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 고대문화재의 스토리텔링 과정

[에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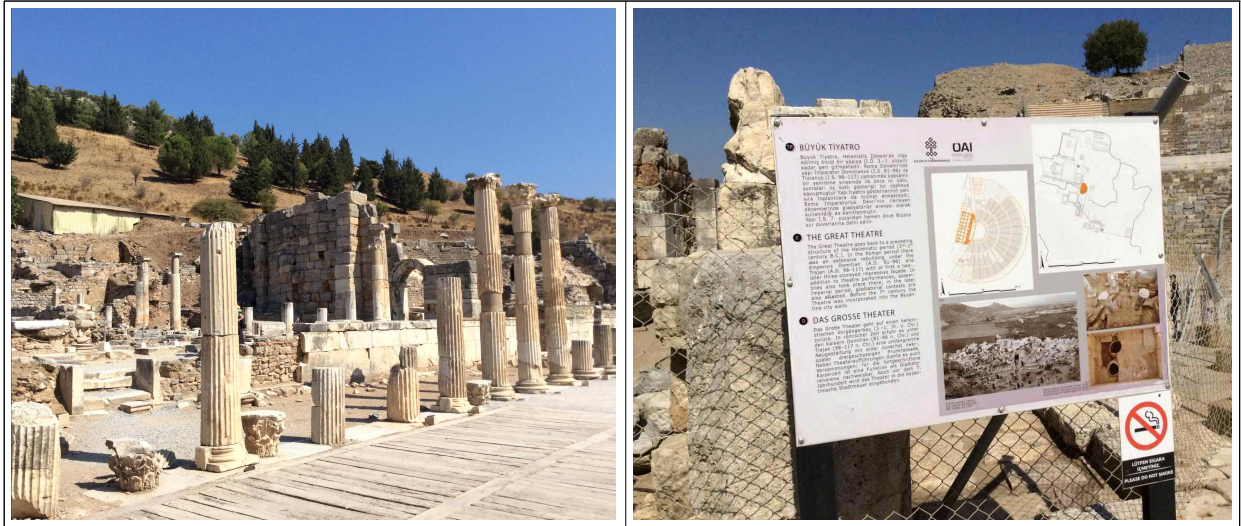
- 소아시아 서쪽 연안의 고대도시로 기원전 1,400년전의 유적까지 발견된 곳이다. 기원전 11세기 말경부터 이오니아인의 식민도시가 되어 초기 그리스문화가 발달했고, 그 후 기원전 6세기부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해방되어 헬레니즘 문화, 이어 로마문화가 번영하고 중요한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진 곳이다. 현존하는 고대 유물은 헬레니즘 시대의 아고라와 극장, 하드리아누스 신전, 셀수스 도서관 등이다.

- 대표 건축물인 셀수스 도서관은 당시 12,000여권의 장서로 당대 3대 도서관에 꼽힐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한다. 여러차례 전쟁과 지진 등으로 훼손된 셀수스도서관은 현재 1970년대 복원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전면 기둥 사이 네 명의 여신상은 지혜, 지식, 우정, 이해를 상징하고 현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고, 진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셀수스도서관은 최고의 복구기술로 복원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에페소는 현재도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도 했다.

- 특히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로 사도요한의 교회 등 가톨릭교회의 성지로 수많은 성지순례단의 방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물론, 스토리가 없어도 에페소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매료시킬 충분한 볼거리가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각 건축물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거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이 재탄생했다고 본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강원 문화유산을 재탄생 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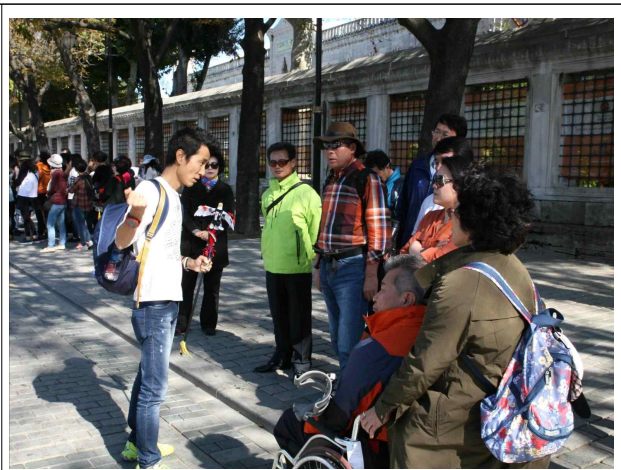
《의정활동 참고 사항》

- 에페소라는 세계적 문화유산과 강원도 문화재와의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과 연결한 스토리텔링에 성공한 에페소의 문화재 관광화 전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선왕릉 40기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단종애사’가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례는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와 이야기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횡성의 “풍수원 성당”, 원주 신림의 천주교 유적지를 비롯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 존재하여 이들을 사례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임.

3. 관광서비스 실태 조사

가. 외국인 단체관광객 현지인 가이드 의무 동행

- 터키와 그리스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인하면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이 우선 높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가이드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을 폄하하는 실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인 가이드 외에 자격을 지닌 자국민 가이드를 반드시 동행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었다.



- 현장에서 아테네 포세이돈 신전을 일정 외에 추가하여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리스인 가이드가 예약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인 가이드는 포세이돈 신전에 함께 동행 할 수가 없었다. 이는 관광지 입구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역사 설명과 문화재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검증절차로 보여 졌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관광정책에도 도입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른 역사인식과 문화

재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오디오투어 시스템

- 앞서 살펴본 단체관광객들은 현지인 가이드를 동행하게 함으로써 자국 역사와 문화재의 정확한 설명을 가능케 했고, 개인 관광객들에게는 ‘오디어투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터키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터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주요 언어로 관광지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오디오투어를 제공했다. 서비스 비용은 우리 돈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다소 비싼 감이 있었지만, 한국어로는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는 없었다.



- 이 부분을 다소 개선하여 기존의 강원도에서 개발한 ‘토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터키의 경우 별도의 라디오와 같이 생긴 기계를 임대 받아서 사용하

고, 각 문화재와 관광지 지점에 적혀있는 번호를 선택하여 가이드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동하게 된다면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은 스마트폰을 통한 유료결제 방식과 무료제공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유료결제 방식을 이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동시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다. 입장료 비교 분석

- 터키, 그리스 관광지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단연 입장료 부분이었다. 터키지역 문화재 관광지 대부분의 입장료가 한화로 15,000원 정도였고,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입장료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료들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 최근 문화재청의 문화재 입장료 인상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인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국민 정서상 선진국 수준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문화재 입장료를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사용하고, 그 몫을 문화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한다.
- 문제는 문화재 향유가 국민적 부담이 돼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점인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입장료 인상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복원노력과 선진국 수준의 관리능력으로 향상된다는 점이 담

보되었을 때 입장료 인상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세수 부족에 따른 인상은 설득력도 없고 검토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인상안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터키, 그리스 지역 입장료]

지역	관광지	입장료	원화
이stanbul	성소피아 박물관	30리라	15,000원
	톱카프 궁전	30리라	15,000원
셀축	에페스	30리라	15,000원
파묵갈레	히에라폴리스	20리라	10,000원
카파도키아	데린쿠유 지하도시	20리라	10,000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유적	12유로	16,000원
	포세이돈신전	4유로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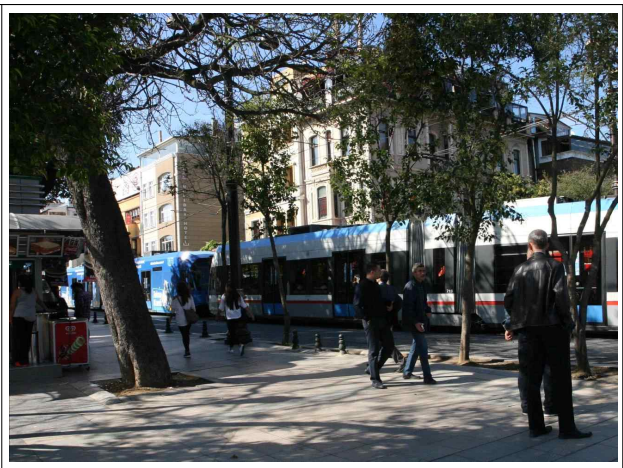
[서울, 강원도 지역 입장료]

지역	관광지	입장료	비고
서울	경복궁	3,000원	
	4대국 종묘 통합관람	10,000원	
강원도	정릉	1,000원	
	월정사	3,000원	

라. 교통시설

1. 이스탄불 교통수단

- 터키의 경제 중심지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스탄불은 항상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더구나 세계적 관광지로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데다 일정 당시에는 대형 크루즈 2대가 정박해 시내에는 더욱 많은 차들이 붐벼 이동시간이 길어져 불편함이 있었다.
- 이스탄불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시티투어버스 격인 ‘빅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철 뿐만 아니라 지상에 ‘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트램’은 다양한 색깔과 크기로 운영되고 있어 이스탄불 도시의 상징처럼 보인다.



2. 아테네 트램

- 2004년 올림픽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트램은 교통체증에 상관없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노선이 설계되어있다. 주로 일반 교통수단이

아닌 해안선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 트램의 노선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편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나, 노선의 운영상 경제적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리스 경제악화와 더불어 발생한 공공요금 인상시에도 매년 논란이 된다고 한다.

3. 페리 및 크루즈

- 에게해, 지중해 등으로 둘러싸인 터키, 그리스 지역은 해양 교통시설을 잘 발달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관광객 수용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 이용한 관광용 소형 페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고 불리는 독특한 소재와 함께 양 지역의 경관을 비교해 보면서 감상할 수 있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었다. 페리 안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고, 야간에는 선상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한다.
- 터키 체스메에서 그리스 히오스까지의 1시간 정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선박은 50여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 작은 선박이었지만, 국가와 국가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통관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리스 히오스에서 아테네까지의 이동수단이었던 나이트페리는 1박을 하면서 이동했는데 80유로라는 비용에 비해서 선박의 서비스와 객실 수준은 만족스러웠다.

- 강원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서 페리나 크루즈를 이용한 해양관광의 수준이 많이 뒤쳐져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특성화된 상품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경제블록화가 이뤄진다면 관광적 측면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항공에 비해 저렴한 페리는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고, 크루즈는 호텔 등 숙박 부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도 연계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라 판단했다.

마. 장애인 편의시설

- 터키지역과 그리스 아테네 주요관광시설을 이용할 때와 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회문화위원회의 국외연수에 장애인 의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국외연수시 주요한 확인사항이었기도 했다.
- 터키 아타튀르크영묘 방문시에는 대리석 건물로 초기 건설 당시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 곳이 많았던 거 같지만, 현재에는 모든 장소에 간이 이동 편의시설 및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먼저 요청하기도 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직원들이 친절히 이용을 도와 줘서 인상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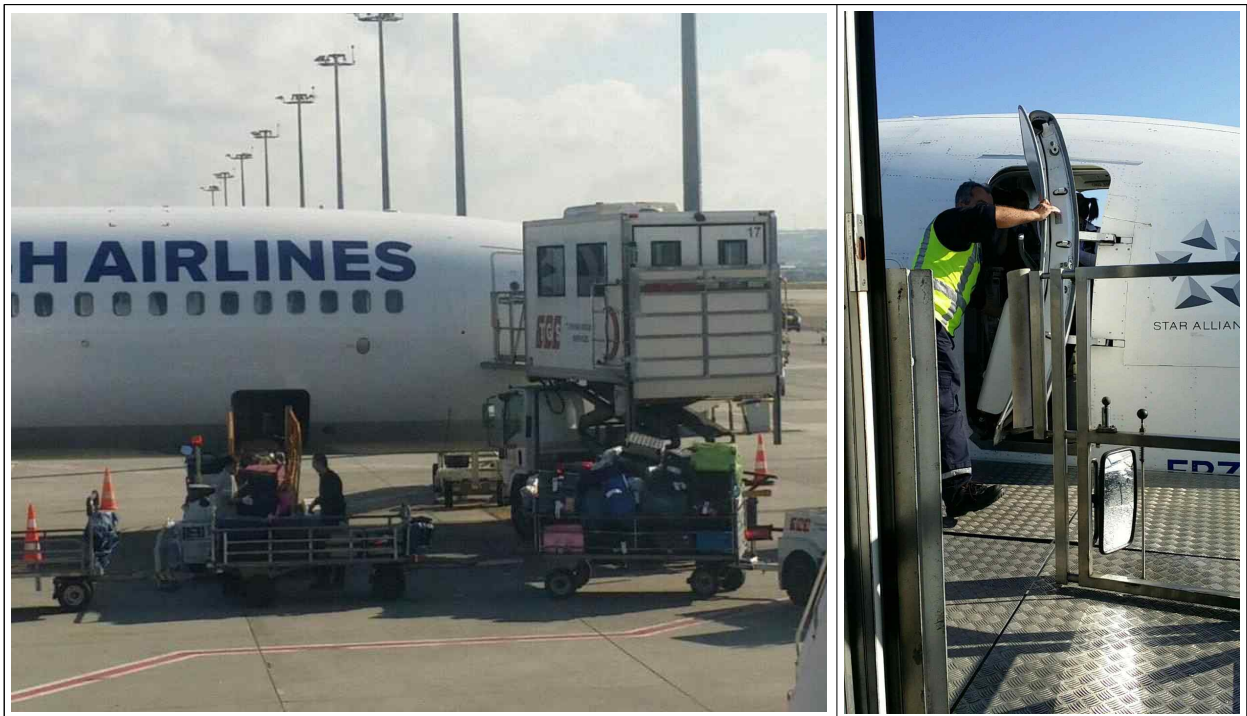


-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지역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했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이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거라 예상했지만, 입구 앞에서 별도의 통로를 안내해 주었고, 절벽 위의 파르테논신전 까지 이동이 가능한 간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이 가능했다. 시설이 안전상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담 안내직원이 끝까지 동행해 주었고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부분이라 이해할만한 수준이었다.



-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탑승교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국내선 소형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스텝카(계단 등 승하차 장비를 갖춘 차)를 미리 준비하여 줬고, 탑승절차와 입국절차 등 모든 공항 내 모든 구간을 공항 관계자가 동행하여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아직 한국 지방공항에서는(도내 원주 공항도 같은 상황) 스텝카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있고,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 도내 관광지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은 갖추고 있으나,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도 관광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8 평창올림픽 이전에 도내 공항 등 교통시설에 장애인의 탑승 편의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 됐다.

4. 체육분야 발전방안 고찰

[아테네 올림픽경기장 및 국회의사당]

- 근대아테네올림픽경기장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양궁경기장으로 사용되기 했고, 마라톤이 결승점이기도 했다.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될 때 그리스의 부호 아베로프가 고대경기장 모습으로 복원하여 건설되었다고 한다.
- 방문 당시에는 마라톤 생활체육인들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소규모의 생활체육인들의 행사였지만, 경찰부터 응급차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인들의 체육에 대한 사랑을 특별히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선수들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했고 이는 고대그리스부터 스포츠정책을 국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적극 추진했던 노력들의 결과일 것이다.
- 경기장 앞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기장 모습과 당시 개최됐던 경기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 근대문화재가 현재에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근대문화재 앞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그리스인들과 문화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교감할 수 있게 만든 관광시설물을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아테네라는 관광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료사진. 2004 아테네올림픽 당시 양궁경기장

- 올림픽경기장 인근에 있는 그리스 국회의사당 건물은 초대왕의 왕궁이었던 건물로 19세기 건축물이다. 그리스 국회의사당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원이 그리스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그리스 국회의사당이 주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다.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위병교대식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한다.

5. 그리스 복지 분야 현황 조사

-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토론되었던 부분은 그리스의 복지정책과 그리스의 경제위기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짧은 방문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사전조사와 교민들과 만나서 토론을 진행하는 수준에서 이해의 방향을 넓이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두고 복지 때문인가에 대한 논란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리스가 과연 인근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국가가 맞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논쟁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복지의 방향이 특정 대상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연금 수준에도 노인빈곤율이 유럽 최고 수준에 있고, 포퓰리즘과 결탁한 정치권의 복지확대와 더불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심각한 지하경제(투명하게 조세를 걷지 못함) 등 다양한 측면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 특히, 복지확대 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이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불법이 만행하고 수요대상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재정확대를 가져왔다는 현지 교민들의 설명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아테네 소재 노인복지시설 RELAX PALACE

- 1999년 부터 운영된 시설로 그리스 보건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한국의 고급스러운 실버타운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의료진과 간호사가 케어를 해주고 있고 도서관과 미용실, 물리치료실, 산책로 등이 갖춰져 노년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 그리스의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80%이고, 공무원의 경우 95% 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노동집단에만 연금이 집중되었고 빈부격차는 매우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제위기 이후 연금소득대체율은 60% 수준으로 내려놓아 정상화 하고 있다. 살펴본 노인복지시설도 유료 시설로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수급자, 부동산 수익자 등의 일부 계층이 주로 이용가능한 시설이다.

VII

의정활동 반영 대상 및 방향[요약]

항 목	반 영 방 향
○ 국제 문화행사의 내실 강화	○ 국제민속축전 등 행사 기획시 실질적 국제행사를 위한 상시적인 민간기구와의 데이터 교류 및 구축 ※ 단순 참가인원 확대가 아닌 스토리의 개발이 필요
○ 지역내 대학들의 국제교류 사업 지원	○ 도내 지역 대학들의 국제교류 강화가 대학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도내 청년층 취업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임. ○ 집행부 및 도의회가 국제교류 사업 추진 시 지역내 대학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 후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가교 역할 수행
○ 문화재 복원과 입장료	○ 문화재 복원의 필요성과 방법을 재점검하고 유네스코의 복원원칙을 도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과의 입장료 차이는 세수 부족의 문제 차원이 아닌 문화재 복원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하는 관람객들의 가치 척도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관광 편의시설 점검	○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정확한 해설이 가능하도록 인증제도 및 내국인 가이드 동행 의무 절차 도입 필요. ○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오디어 투어’ 시스템 개발 필요 ※ 기존 강원도에서 개발한 ‘토스트’ 앱에 ‘오디어 투어’ 기능 포함하는 방법 강구 필요
○ 복지분야 서비스전달체계 확립	○ 그리스의 복지정책 실패는 정책의 확대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달체계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발생한 부분이 있음. ※ 신규 복지사업 시행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상 파악,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달체계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 전통시장의 관광화 전략	○ 전통시장의 불편을 편리함으로 바꾸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중국인 관광객 대비 쇼핑센터의 신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시장으로의 유입 및 유입할 수 있는 스토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도내 공항을 비롯한 관광시설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만을 갖추는 문제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력 확대 문제를 검토.

※ 이 수록 부분 : 연수내용 및 방문성과 부분 참조